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센터장 워크숍

정책 공유 및 지역·주제별 토론 열어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전국 센터장 워크숍이 1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무주에 개최됐다.

17일 적상면 밀도 빨강치마 리조트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무주군 윤여일 부군수와 유품열 의장, 한국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신숙자 회장을 비롯한 전국 센터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협회 및 참가센터 소개와 한국아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대표로부터 특강을 받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여일 부군수는 “다문화가족은 다양성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우리”라며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정이 가능해지고 포용과 존중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달라”고 말했다.

18일에는 이주여성노동자·난민·가족정책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역별 분임 토의와 내용 발표의 시간이 마련됐으며 며루와인등불과 덕유산 향연봉을 둘러보고 래프팅과 산악오도바이 체험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한국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는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다문화가족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니름’이라는 ‘희망’을 슬로건



17일 적상면 밀도 빨강치마 리조트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무주군 윤여일 부군수와 유품열 의장, 한국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신숙자 회장을 비롯한 전국 센터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으로 내걸고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적 상생,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니름’이라는 ‘희망’을 슬로건

터를 통해 2백여 가구 7백여 다문화가족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교육과 사회활동을 지원해 이들이 무주군민으로서 정착해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모험활동 알릴 모험대사 8명 새로 임명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모험 활동을 널리 알릴 제3기 CNU 모험대사 8명이 지난 17일 오후 이남호 총장에게 임명장을 받고 모험 활동 홍보를 새롭게 시작했다.

이날 이남호 총장은 CNU 모험대사가 전북대 학생들의 모험 활동을 이를 일인자로서 자금심과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의 모험역량을 강화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했다.

CNU 모험대사 제3기 학생들은 앞으로 1년 동안 학술·저술·해외모험탐방, 공모전, 대외봉사활동, 창업 등 5개의 분야 활동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모험대사 토크콘서트 ‘나의’를 비롯해 블로그길을 걸으며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풀레밸류’, 모험 블로그 ‘모두MODU’와 모험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모험 홍보 활동을 펼친다.

모험대사의 활동은 학생 선배가 직접 다양한 모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서고,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한 상시적 소통 역시 학생들이 모험인재로 성장하는 데 미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기 CNU 모험대사 대표 권다은 학생은 “전국 대학 중 유일한 모험대사인 민족 앞으로 ‘모험생’ 넘어 ‘모험으로’라는 대학 슬로건에 맞게 우리 대학 모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진안군농민회 가족한마당 성황리 개최

진안군농민회(회장 손경종) 가족한마당 행사가 18일 주천면 구암마을 숲에서 이향로 군수, 신갑수 군의장을 비롯한 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천면 풍물패의 신명나는 공연과 부귀연 동아리 ‘12현의 율립’의 가야금 연주를 시작으로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에서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어울린마당과 화합한마당 시간에는 노래자랑 등 흥미로운 이벤트가 펼쳐져 농번기철 모내기와 농시일로 인한 피로를 잡으나마 해소하고 재충전의 시간이 됐다.

손경종 회장은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진안군 농민회원들이 지금처럼 가지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의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농민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향로 군수는 “올 여름 지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민들의 땀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농업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서 보안협력위, 추석맞이 다문화가정 초청 사랑 나눔

순창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유재만)는 18일 경찰서에서 다문화가정 아주여성을 초청, ‘추석맞이 사랑 나눔 위문 행사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행사는 순창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 아주여성을 선정, 상품권과 각종 선물세트를 전달하며 낯선 이국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물을 받은 아주여성 A씨(김보미)이는 “모국과 문화는 다르지만 따뜻한 선물과 정을 나누는 한국의 명절 문화를 함께할 수 있어 좋았으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순창경찰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서, 판소리 활용 신명나는 어르신 교통안전 홍보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지난 17일 현곡미술회관, 두만 모정에서 교통관리계 직원과 운수과 출소 합동으로 신명나는 판소리 활용 어르신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는 운수과 출소 현현대 경위가 평소 판소리로 취미 생활로 갖고 있던 실력을 발휘, 무료한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홍보를 하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홍보 내용으로는 안전보행 3원칙(서다·본다·건넌다)과 이간 외출 시 밖은 옷 입기,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자 사고예방과 사발이·이륜차 운행 시 필히 헥 곤이 고정된 안전모 착용 등을 당부했다.

박주현 경찰서장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임실경찰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 경로당·마을회관 등 순회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의용소방대 줄다리기, 충주세계소방관대회 금메달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의 용소방대 연합회가 충북 충주에서 개최된 ‘제13회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줄다리기는 단순 힘을 겨루는 경기가 아닌 하나되는 마음으로 협동심이 요구되는 종목으로 그 동안 고창의용소방대는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하나되는 마음의 결실이다.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50개국 6000여명의 전 세계 전·현직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및 가족들이 75개 종목에 참가하여 우호를 즐길며 스포츠 경기를 겨루는 국제대회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에너지서비스 사랑의 행복장학금 전달

전북에너지서비스(대표 정회)는 18일 익산시를 방문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행복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및 공동체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3곳의 민간사회복지관을 통해 추천된 청소년 50명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정회 대표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회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갖고 미래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너지서비스(주)는 2008년부터 매년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왔다.

/익산=우병희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트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 이영근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